

# 도시의 입지; 명당과 강물

## Sites in the City : Propitious Spots and the River

박시익 / 명당건축사사무소  
by Park Si-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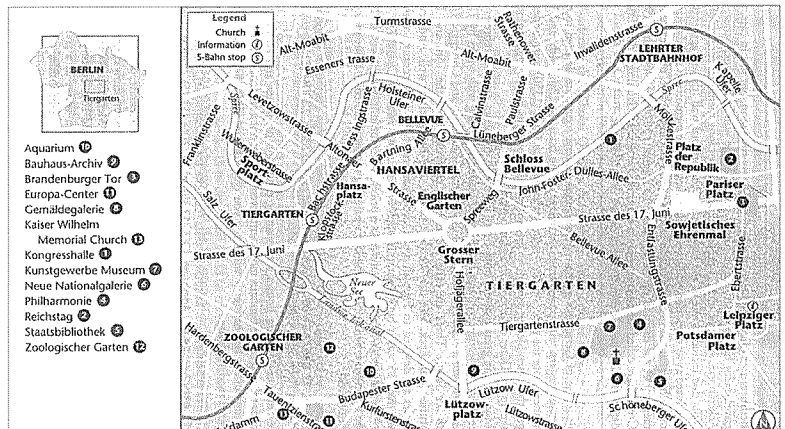
해외사업 성공의 지름길은 대도시 중심부에 사업장 또는 숙소(주택)를 자리잡는 일이다.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에도 외국의 벽촌으로 들어가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도심지의 시장에 자리잡는 것이 확실한 성공방법이다.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의 중심지와 시장바닥이 명당이기 때문이다.

### 반월성과 명당

세계 여러 도시는 대부분 강이나 바닷가 등 물가에 자리잡고 있다. 물이 사람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가 전역이 골고루 도시가 된 것은 아니다. 수 천 킬로미터를 흐르는 라인강이나 도나휴강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일강 등 여러 강변에도 도시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극히 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해안가에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도시가 있는 것은 강가와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강이나 바닷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적합한 조건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대하다. 그러나 강물의 흐르는 형태와 도시의 입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한편 풍수지리의 이론에서는 도시는 강과 산의 특별한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도시와 강의 형태 관계는 새롭게 연구되어 신도시 선정시 입지의 이론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AD 80년에 석탈해는 자신의 집터를 경주의 남쪽 반월성에 정하고 이곳에 살았다. 이곳이 명당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석탈해가 이곳에 살자 행운이 그에게 줄곧 따라왔다. 그는 신라 제 2대 남해왕의 사위가



베를린

되었고 말년에는 신라 제4대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가 성공한 것은 집터가 명당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월성과 같이 강물이 U자 형으로 돌아가는 지세는 초생달 형태라고도 말한다. 초생달은 한쪽이 우묵하게 패어 있어 점차적으로 커지는 과정 위에 있어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름달은 이미 완전히 둥글게 되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점차 작아지는 과정 위에 있어 앞으로 쇠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생달형은 항해하는 배의 형태를 닮아 행주형이라고도 한다. 배는 물자와 사람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행주형이거나 또는 초생달형의 땅은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상징하는 길상의 형태이다.

초생달과 같은 형태의 지역을 지도상에서 찾아보면 반월성 이외에 세계 여러도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로마, 런던, 파리, 베를린 그리고 모스크바 등은 모두 초생달과 같은 U자형 강변의 도시이다. 그 이외에도 인도의 캘커타, 델리, 캄보디아의 프놈펜, 대만의 타이페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암스텔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영국 맨체스터, 글라스고우, 셰필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폴란드의 바르샤바, 캐나다의 몬트리올, 미국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등 세계 여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모두 U자 형태의 강 하변에 자리잡은 초생달형의 도시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가 초생달 형태의 U자형 강변에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풍수지리 이론이 세계 여러 도시의 입지 분석이론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 도시의 입지조건과 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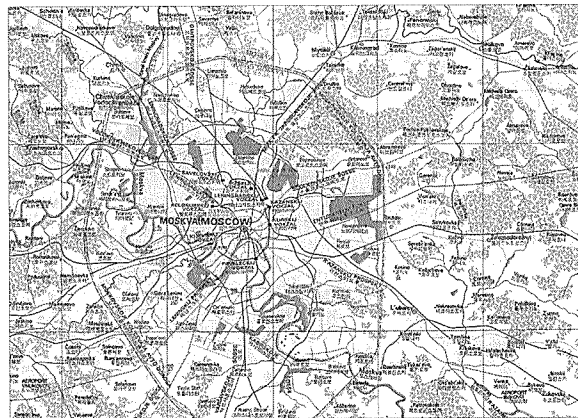
초생달 형태의 U자형 강 하변이 명당 즉 행운의 기운이 있는 땅이라는 근거는 조선시대 이종환이 쓴 택리지에서 찾게 된다. 택리지는 대표적인 풍수지리 이론서이다. 풍수지리 이론에서 이상적인 땅을 명당 또는 혈이라고 한다. 명당 또는 혈이란 사람의 건강과 경제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운이 많이 모여있는 땅을 말한다. 명당에서 발생하는 기운을 생기(生氣)라고 한다. 사람이 명당에서 생활하면 생기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하게 된다. 개중에는 재벌이 되거나 정치가로 출

세하게 사람이 배출되기도 한다. 명당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행운의 기운이기도 하다.

명당은 산이나 강 등 지리적인 기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중 대표적인 기운으로는 물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말한다. 음양의 이론으로 물과 땅의 성질을 비교하면 땅은 물에 비해 따듯하나 물은 차갑다. 그러므로 땅은 양으로 물은 음으로 구분한다. 명당은 물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며 결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 명당을 이루지 못하나 오아시스에는 물이 있어 명당이 된다. 명당은 음기운과 양기운이 겸비되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지세의 기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물의 유무, 규모, 흐름의 상태, 수질, 그리고 물의 흐르는 방위 등은 한 지역의 기운을 분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명당은 특수형 명당과 장풍형 명당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특수란 물을 얻는다는 뜻이나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물의 흐름에 의하여 지상에 기운이 모인다는 의미이다. 특수형 명당은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기운을 만들어 주는 곳이다. 초생달 형태의 U자형 강변에 이루어진 도시는 특수형 명당이다. 한편 장풍형 명당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주변의 산이 감싸주어 기운이 모이는 곳을 말한다.

강은 하도(河道)의 형태에 따라 직류하천(直流河川, Straight-Stream) 곡류하천(曲流河川-Meander, Free Meander) 망류하천(網流河川 Braid-Stream)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강물의 형태는 바람의 속도와 관련된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바람은 강물과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강물이 직선으로 흐르는 곳에는 바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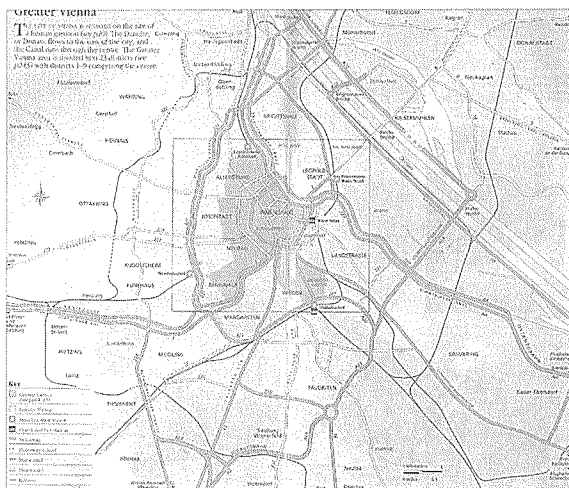
모스크바

직선으로 불어 바람의 속도가 빠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은 공기의 압력이 낮아져서 사람의 건강에도 해롭다. 빠르게 부는 바람은 땅의 기운을 분산시켜 명당을 이루지 못한다. 강물이 U자 형의 곡선으로 흐르는 곳에는 물의 유속이 느리며 이곳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약하다. 명당이나 도시는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바람도 약하게 부는 곳에 이루어진다. 초생달 형의 강변은 강물과 바람이 천천히 흐르는 지점이라는 점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후랑크 로이드 라이트는 유명한 폭포 위에 주택, 일명 낙수장을 설계하였다. 그가 설계한 낙수장의 형태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주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주택의 주인은 이 집에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치 귀신 우는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주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이 집은 박물관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 위의 이야기는 강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곳 또는 폭포 가까운 지역에서는 명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실례가 된다.

물은 규모상 바다, 강, 개천, 그리고 샘물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도시는 바다나 큰 강가에만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개천가에도 자리잡는다. 샌프란시스코는 넓은 바다가 보이는 서쪽보다 만에 접해있는 동쪽이 더욱 발달하였다. 시카고는 넓은 호수가 있는 동쪽보다는 작은 강이 있는 서쪽에 발달하였다. 이들 도시들은 큰 물 보다는 작은 물에서 도시가 발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도시와 강의 위치 및 방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도시의 남쪽에 강을 접하고 있는 도시 중에는 파리,



비엔나

런던, 멜버른, 시드니, 모스크바, 프랑크푸르트, 스톡홀름, 함부르크, 디트로이트, 호치민, 호놀룰루 등이 있다. 도시의 남쪽 이외의 방위에 강을 접하고 있는 도시는 더욱 많다. 도시의 동쪽에 강과 접하고 있는 도시 중에는 델리,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룩셈부르크, 샌프란시스코, 상해, 몬트리올, 마닐라 등이 있다. 도시의 서쪽에 강과 접하고 이 있는 도시는 로마, 캄보디아, 타이페이, 카이로, 오타와, 듀셀돌프, 하노버, 드레젠, 맨체스터, 방콕 등이 있다. 도시의 북쪽에 강과 접하고 있는 도시는 베를린, 비엔나, 쾰른, 피츠버그 등이 있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에 있어서 도시는 강은 어느 일정한 방위에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와 강의 방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수구(水口)와 명당

도시 전면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이 하류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을 풍수지리 이론에서는 수구(水口)라고 한다. 지세에 있어서 수구는 물탱크의 배수 밸브와 같은 기능을 한다. 밸브가 열린 곳에는 물이 흘러나가고 밸브가 닫혀 있는 곳에만 물이 고일 수 있다. 수구는 인체의 항문과도 기능이 같다. 항문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서 체내 기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생명력을 유지시킨다. 그러나 사람의 항문이 열리면 체내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사람은 죽게 된다. 이와 같이 수구는 지세에서 생기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 지역이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구를 통해 물은 빠져나가더라도 바람은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면 생기가 발생하며 행운의 기운이 모이게 된다. 수구에 산이 있는 지세에서는 물이 산을 감싸고 돌아가게 되어 비록 강물은 산을 돌아 빠져나가지만 바람은 직접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러한 형태의 수구를 좁은 수구라고 한다.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구는 반드시 좁아야 한다. 좁은 수구는 일명 막힌 수구라고도 말한다. 수구가 좁은 곳에서는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여 마치 막혀있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수구가 막힌 지세에서는 행운의 기운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며 동시에 부자나 훌륭한 인물 등 성공

하는 사람을 많이 배출시킨다. 도시는 수구가 좁은 지역에 발달하게 된다. 초생달 형태의 U자형 지세는 수구가 좁아 강물과 바람의 흐름이 막혀 생기가 모이게 되는 대표적인 명당지세중의 하나이다.

강물이 직선으로 흐르는 곳에서는 수구로 물이 흘러 나가는 동시에 바람도 빠져나간다. 수구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지역에서는 기온도 빠져나가 명당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 이곳에 사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된다. 재물이나 명예는 건강을 잃으면서 함께 잃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시 전면에 흐르는 강의 하부 즉 수구 지점에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의 이름이 보물섬 (Treasure Island)이다. 어떠한 이유로 이 섬의 이름이 보물섬이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보물섬은 강물의 흐르는 속도를 격감시킨다. 강물의 흐르는 속도가 저속으로 변화되면 이곳에 흐르는 바람의 속도도 약하게 된다. 바람이 잔잔한 곳에서는 생기를 이룬다. 생기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근면하게 된다. 그 결과 재물과 명예를 갖는 행운도 맞는다. 보물섬과 같이 강 가운데 있는 섬은 도시의 생기를 발생하게 하는 보물과 같은 작용을 한다. 섬의 이름을 보물섬이라고 한 것은 풍수지리의 이론으로 보아 매우 합당하다.

보물섬은 도시 전면의 강이나 수구 지역에 위치하면 기능이 효과적이다. 보물섬은 강물의 유속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물이나 바람이 섬 주위를 통과할 때 마찰음을 발생하기도 한다. 강과 섬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리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섬의 기능에 의하여 도시사람들은 즐겁게 살며 동시에 건강과 행운을 받게된다. 보물섬이 있는 도시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외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모스크바, 캐나다 몬트리올, 독일 함부르크, 암스텔담, 파리,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인도의 델리, 뉴델리, 미국의 보스턴 등이 있다. 보물섬이 있는 도시는 행운이 따르는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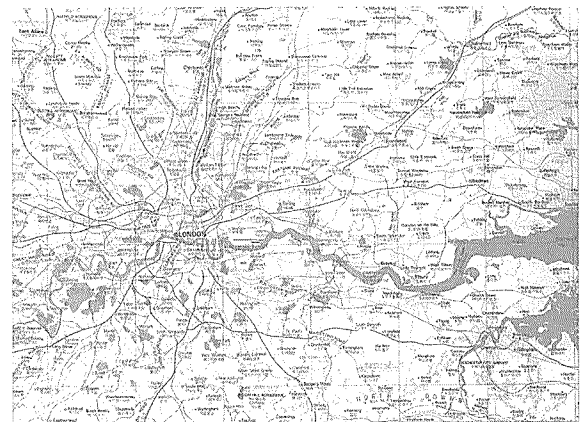
초생달 형태의 U자형 강변의 하부지역은 자연지리학적 이론으로는 공격면(攻擊面, Cut-Bank)이라고 한다. 이곳은 흐르는 물이 지면의 흙을 밀어내어 장기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불안한 지역으로 해석한다. 강을 중심으로 하여 공격면의 반대편에 자갈이나 모래가 쌓이는

지역은 'Point Bar'라고 하여 이 지역이 공격면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로마, 런던, 파리, 모스크바 등 대부분의 도시가 공격면에 자리잡고있는 반면 포인트 바에 자리잡은 도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초생달형 도시와 접한 U자형 강하변에서는 강물의 유속이 매우 약하여 땅을 밀어낼 만큼 강하지 못하며, 또한 명당의 지하에는 강한 암반이 받쳐주고 있어 약한 강물에 흘러 내려갈 위험이 전혀 없다. 자연지리학의 이론은 도시의 입지를 분석하고 선정하는 이론으로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 땅의 앞뒤 구분

풍수이론에서 땅은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땅의 기운이 앞면과 뒷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땅은 위치에 따라 토질이 다르듯이 땅에서 발생하는 기온도 다양하다. 땅의 기운 중에는 사람의 건강에 유익한 기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해로운 기운이 있는 땅도 있다. 땅의 앞면에는 좋은 기운이 많으나 땅의 뒷면에는 좋은 기운이 부족하다. 땅의 앞면과 뒷면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나 나뭇잎 등 생명체에 비유된다. 사람의 배 즉, 앞면에는 젖과 생식기 등 중요한 부분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뒷면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엄마 몸의 앞에는 아기가 먹을 젖이 있으나 등에는 먹을 젖이 없다. 이것은 사람의 신체에 앞과 뒤가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감나무 앞의 앞면은 반짝이지만 뒷면은 꺼칠꺼칠하다. 이것은 앞면과 뒷면의 기운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의 형태와 아울러 땅의 형태도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땅도 거대한 생명체로서 땅의 앞면에는 생기가 많아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하며 마음도 편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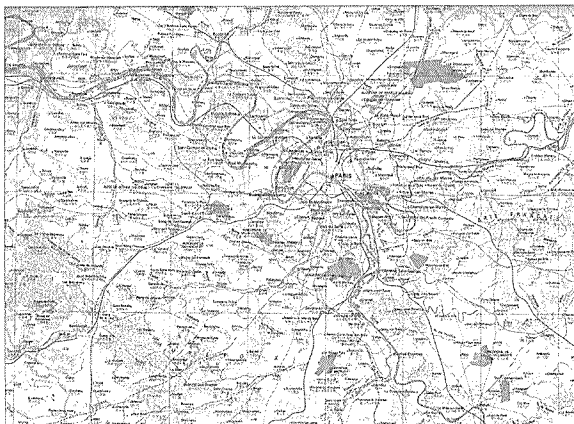


런던

행복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땅의 뒷면에서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한다. 명당은 땅의 앞면에만 있으므로 대부분의 도시는 땅의 앞면에만 자리잡고 있다. 땅의 뒷면에서는 비록 U자 형태의 강과 접해 있어도 도시가 되지 못한다. 초생달형 도시에 U자형의 강물이 땅의 앞면과 만나는 경우에만 명당이 된다. 만약 땅의 뒷면이 초생달 형 지세로서 U자형 강의 연안에 있어도 이 경우에는 명당이 되지 못하고 생기도 발생하지 못한다.

땅의 앞면과 뒷면의 구분하기 위해서는 땅의 경사도, 형태, 밝기, 풍속, 그리고 온도 등을 분석하게 된다. 땅의 앞면은 경사가 완만하나 뒷면은 경사가 급하다. 땅의 앞면은 지표면이 균일하고 매끄러우나 뒷면은 거칠며 바위가 중간 중간에 솟아 있다. 토양의 색이 앞면은 밝으나 뒷면은 어둡다. 바람이 흐르는 속도가 앞면에서는 약하나 뒷면에서는 강하다. 공간의 분위기가 앞면은 평화스러우나 뒷면은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땅의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는 작업은 지세를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자연지리학의 게스타 이론에서 땅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과 급한 지역 2종류로 구분한다. 게스타 이론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풍수이론으로는 땅의 앞면에 해당되며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다. 반면에 좁고 경사가 급한 에스카프먼트는 풍수이론으로는 땅의 뒷면으로 이곳은 거주지로 불리한 곳이다. 파리 시내 동쪽은 경사가 완만한 쪽 즉, 땅의 앞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사가 급한 에스카프먼트는 도시의 외부 경계선으로 하였다. 위의 자료는 파리가 땅의 앞면에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파리와 같이 오늘날의 큰 도시는 물론 작은 취락지도 오래 전부터



파리

땅의 앞면에 자리잡아 이곳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땅의 좋은 기운에 의하여 발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구조론으로 보면 지구의 토질은 시루떡 형태의 여러 층의 판상으로 되어 있다. 역단층 이론으로 분석하면 산 또는 능선은 시루떡 같은 판상형 지면의 한 끝 부분이 높이 솟아오른 형태이다. 역단층 이론과 풍수이론을 결합하여 분석하면 지면의 상승 과정에서 평평하던 지표면 한 쪽이 솟아오른 후에 이루어진 완만한 경사면은 땅의 앞면이 된다. 한편 지하에 단층으로 있던 부분이 지상으로 솟아오른 부분은 급경사를 이루며 지표면에는 날카로운 암석이 노출되어 있다. 이 부분은 풍수이론으로 땅의 뒷면에 해당된다.

풍수지리 이론과 자연지리학의 이론을 상호 비교하면 땅의 앞뒤에 대한 이론을 명확하게 한다. 풍수지리의 땅의 앞면에 해당되는 지역은 자연지리학의 게스타 이론에서 경사가 완만한 곳, 역단층 구조에서 완만한 경사면, 양배암 이론에서는 표면이 매끈한 곳, 지표 구조지형에서 하곡(Synclinal Valley) 등이다. 이곳은 도시가 자리잡을 수 있는 지대로 구분된다. 반면에 땅의 뒷면에 해당되는 지역은 게스타이론에서 경사가 급한 면, 역단층 이론에서 급경사면으로 거칠은 표면, 양배암 이론에서 거칠거나 급경사면, 지표구조지형으로 산릉(Anticlinal Valley)에 해당되는 곳이다. 땅의 뒷면은 도시가 발달될 수 없는 지역이다.

## 명당의 기운

초생달형의 U자형 강변 도시는 전면의 강 상부에서 강물 따라 내려가는 바람 즉 산풍(山風; Mountain Wind)과 강의 하부에서 강변을 따라 상승하는 곡풍(谷風; Valley Wind)이 초생달 형태의 땅의 앞면에서 마주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초생달형 도시의 중심지는 산풍과 곡풍 그리고 땅의 기운 등 세가지의 바람이 모이는 지점이다. 이 세 기운이 모이면 땅의 기운과 공기가 음과 양으로 결합하여 회전하며 새로운 기운 즉 생기가 발생된다. 위의 세가지 기운의 교차점을 명당의 중심점이며 도시의 중심점 즉 도심(Core)이라고 말하게 한다.

도심에서는 미세기후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이한 조건이 형성된다.

(1)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다 ; 일반적으로 바람의 방향은 시간에 따라 산풍과 곡풍으로 변화된다. 초생달형의 U 자형 강변 명당에서는 강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하부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불게 된다.

(2) 공기의 압력이 높다 ; 초생달 형의 명당에서는 강의 상류와 하류에서 2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 도심지의 경사면에 부딪쳐서 공기의 압력을 높게 만든다.

(3) 공기 중에 습도가 높고 일정하다 ; 강물 따라 불어온 습도 높은 바람이 도심지 내부에 머물게 되어 도심지의 습도가 높고 일정하게 만든다.

(4) 바람의 속도는 매우 미약하다 ; 강물 따라 내려온 바람이 도시의 경사면에 부딪치면서 바람의 속도가 미약하게 된다.

(5) 공기중의 온도와 조도가 높다 ; 도심지에서는 바람이 미약한 관계로 태양 빛에 의한 지면의 온도가 장시간 보유되어 지면과 공기의 온도가 높다.

(6) 조도가 높다 ; 공기중의 습도가 높아 태양 빛에 의한 조도가 높아진다.

(7) 강물에 의하여 아름다운 소리와 진동이 나온다.

(8) 여러 가지의 특이한 기운이 모여 신성한 공간을 이룬다.

이상과 같은 기후상의 특징으로 도심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생기가 발생하는 곳으로 구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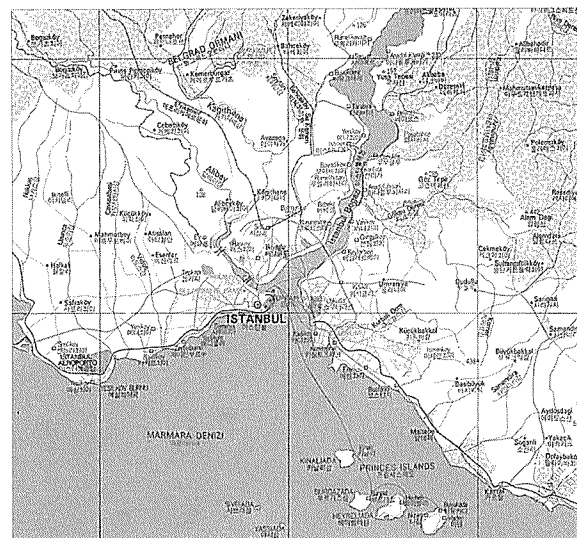
초생달 형태의 U자형 강 하부의 특이한 기후는 사람들을 (1)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며 (2)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3) 긍정적인 생활을 하게 하며 (4) 이웃과 활발한 교류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며 (5) 안정된 생활 위에 개인의 특성을 개발하여 정치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는 전체적으로 행운의 기운이 많은 곳이다. 생기가 많은 이 곳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도시로 발달하게 되었다. 도심은 도시 발생의 시발점이 된다.

대부분의 도심지역에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부자의 생가 그리고 시 청사 교회등 역사적인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푸랑크푸르트의 도심에는 시 청사와 괴테의 생가가 바로 이웃하여 있다. 도심에서 큰 인물이 배출되는 것은 이곳에 있는 많은 생기가 사람을 건강하고 총명하게 하며 행운의 기운에 의해 성공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과학이 발달되기 오래 전부터 자연 조건에 의하여 발달되어 왔다. 지세 중에는 사람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 곳도 있다. 사람은 편안하게 느껴지는 지역에 자주 모이게되고 또한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연적으로 도시가 이루어졌다. 도시의 자연적인 조건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람에게 좋게 느끼게 하는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다. 도시는 경제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발달된 곳이다. 도심지 중에서도 시장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시장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는 곳이다. 시장의 위치를 풍수지리로 분석하면 이곳 시장이 명당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은 모두 명당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 상인들은 전국을 상대로 사업하여 비록 점포 면적은 작아도 사업규모는 매우 크다. 시장에는 물자와 사람과 행운이 많이 모인다. 이곳에는 재벌이 많이 모여 살고 있기도 하다. 시장이 명당이라는 증거가 된다.

직선형태의 강 주변이나 U자형 곡선의 강상부 등의 지역은 바람의 속도가 빠른 곳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서는 공기압력이 낮고, 온도가 낮으며 공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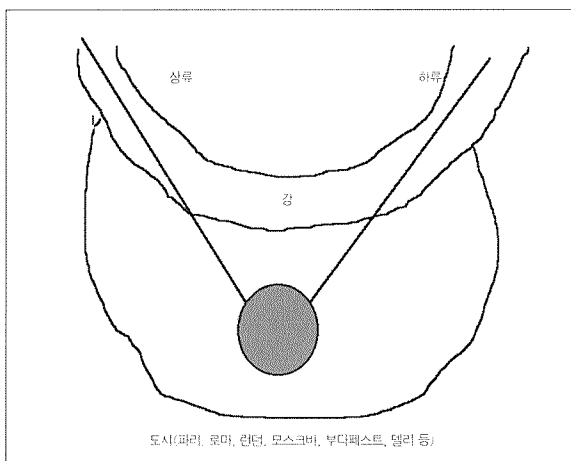
이stanbul

땅의 기운도 결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공간은 사람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지 못하여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도시화되지 않는다. 강변에 도시가 자리잡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곳은 도시가 이루어진 위치보다 행운의 기운이 부족한 곳이다. 도시가 농촌보다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발전적인 공간인 것도 도시와 농촌과의 기운의 차이에 의한다. U자형 강의 하변이더라도 땅의 뒷면에는 행운의 기운이 모이지 않는다. 명당 이외의 지역에 자리잡은 사람들은 행운의 기운이 부족하여 도시사람들 보다는 발전이 부족하다. 폐허로 남아있는 오래된 도시 예컨대 마추피추와 같은 도시들은 명당이 아니어서 도시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결론

로마 런던 파리 비엔나 모스크바 등 동서양의 여러 도시가 초생달형으로 U자형 강하변에 자리 잡은 것은 이곳이 풍수이론상 명당이기 때문이다. 로마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달하게 된 것은 테베르강이 U의 형태로 흘러 명당을 이루고 있으며, 런던은 U자 형태의 테임즈강 덕택이다. 이와 같이 파리, 모스크바, 베를린 등 세계 여러 도시는 U자 형태 강의 기운에 의하여 발달하게 되었다

초생달형의 U자형 강변의 도시는 전체적으로 명당이다. 도시 내부에서 명당의 중심지는 강 상류 및 하류로부터 직선적으로 불어온 바람이 지상에서 만나는 지점이다. 이곳은 도시 발생의 중심점이다. 중심점에서 큰 인물이 배출되는 것은 이곳에 있는 많은 생기와 행운의 기운이 사람을 건강하고 총명하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U자형 강과 도시

다. 도심의 중심지는 명당이며 행운의 기운이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나 주택을 도시 중심부에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AD 80년에 석탈해가 초생달 형의 명당을 잡았듯이 세계 여러 곳에서도 사람들이 초생달형의 명당을 선택하여 이곳에 모여살아 오늘의 대도시를 이루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풍수지리 이론은 현대적 도시입지 분석이론으로 그 가치가 인정된다.

도심지 내에서 명당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을 찾으면 된다. 시장도 그 중의 하나이다. 대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가장 이상적이다. 특히 외국으로 이민 가더라도 벽촌으로 간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도시의 시장에 자리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방법이다. 시장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건물의 값이 고가여서 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자본금이 모자랄 경우 가장 작은 구멍가게라도 시장에 자리잡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성공하게 된다. 시장은 명당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1. 이중환, 택리지
2.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8.9
3.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 건축에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8
4. 풍수지리와 현대건축 기문당, 1991.12
5. 풍수지리와 건축, 경향신문사, 1997.2
6.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8
7. 권혁재, 자연지리학 제2판, 법문사, 1999.8.25
8. 최장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5.15
9. 김두규, 우리 땅 우리 풍수, 동학사, 1998.7.15
8. Eleanor Berman, NewYork, A Dorling Kindersley Book, 1999